

태향 :

초산부는 109명(48.7%), 경산부는 117명(51.3%)으로 비례하였다.

19. 신생아의 성별로 본 태위 및 태향에 있어서는 총 226명의 신생아 중 남아가 125명(55.3%), 여아가 101명(44.7%)이며, 초산과 경산별로 본 성별은 초산부에 비해 경산부가 남아의 출산율을 많이 보였다. 즉 남아출산율이 여아보다 25명(11.1%)으로 높다.

20. 신생아의 체중동태에 있어서는 체중 3,000~3,499g 군이 남아 53명(23.4%), 여아 56명(24.8%)으로 수위를 차지하고, 차위로는 체중 3,500~3,999g 군이 남아 51명(22.6%), 여아 28명(12.4%)이었다. 4,000g 이상군(거대아)이 남아 13명(5.8%), 여아 5명(2.2%)이다. 이로 인하여 분만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모아건강을 위하여 산전 지도가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.

일 농촌지역 가족계획사업 요구에 관한 연구

최신의학 21권 3호, 1972.

양재모 · 김모임

이상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인구, 사회, 및 보건학적 견지에서 가족계획을 꼭 해야 할 제1 우선순위대상중 과반수 이상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,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이 각 가정의 가족계획 요구를 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.

효율적 가족계획 사업을 운영하여 인구증가 문제에 다소나마 더 기여하기 위하여는 가족계획 계몽원 및 지도원에게 가족계획 우선순위 대상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여 우선순위별 가족계획 사업을 하여 피임을 꼭 해야 할 제1우선순위 대상부인은 모두 피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으며, 비실천자는 모두가 제3순위 대상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수시로 대상부인의 인구, 사회, 경제 및 보건학적 여건을 재 사정하여 사업 대상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교육 및 시술 활동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.

일부도시 및 농촌지역의 가족계획 실천율 조사

중앙의학 24권 1호, 1973.

신덕화 · 문정순